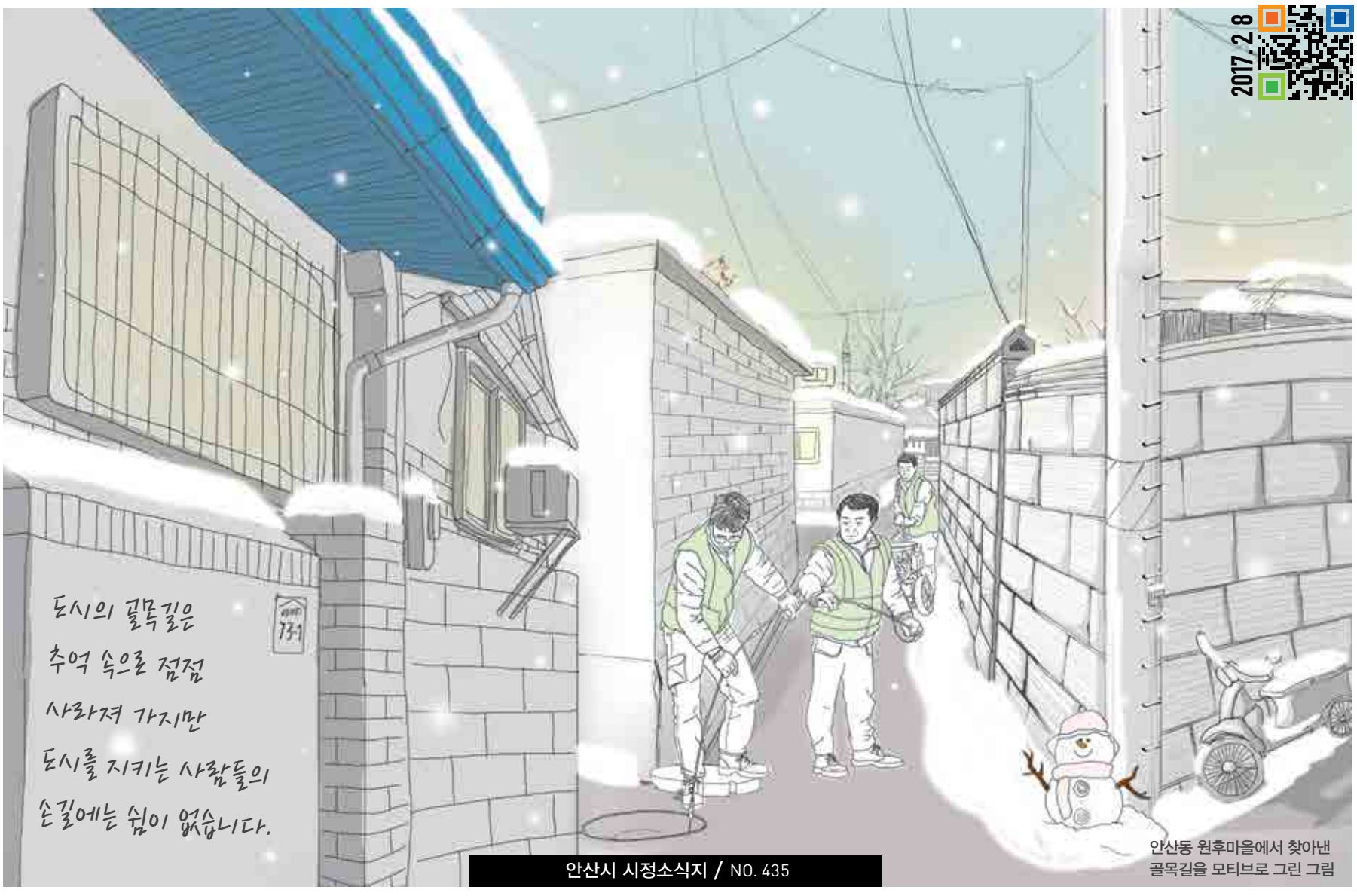
2017. 2 8



안산시 시정소식지 / NO. 435

안산동 원후마을에서 찾아낸
골목길을 모티브로 그린 그림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관련기사 7면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
발행일 2017년 2월 8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공동주택, 낡은 지붕이나 벽 고쳐드려요”

공동시설물 · 재해위험시설 대상, 개 · 보수비용 일부 지원

안산시가 주택조례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물의 개 · 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7일, ‘2017년도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안)를 게시했다.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2017년도에 신청이 가능한 곳은 상록구 팔곡마을, 수암 엘리지움, 예술인, 황제, 푸른마을2차, 건양, 금강(늘푸른) 등 12개 단지, 단원구 신길휴먼시아2차 · 3차 · 6차 · 7차 · 9차, 동명 벽산블루밍, 군자13차, 그린빌16차 · 17차, 효성 등 62개 단지로 총 74개다.

사업의 대상은 재해 · 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보수, 부대시설의 신설 및 보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신설 및 보수 등이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최대 3천5백만 원 이내로 공사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전액, 2천만 원 미만이면 90%, 3천만 원 미만이면 80%, 5천만 원 이하면 70%를 지원한다.

오는 2월 17일 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거친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하며, 4월부터 7월까지 단지별 공사추진 및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가능한 상반기 내에 선급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전체 응답 주민들의 9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사업 유형별 통계를 분석할 결과 아파트가 32% 연립이 68%를 차지했다. 사업 종류는 지붕 및 외벽보수공사가 전체의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외 도로포장공사, 옹벽 및 담장 보수공사, CCTV 설치공사, 어린이놀이터 개 · 보수 등이 포함됐다.

◇ 문의 : 안산시 주택과(031-481-2911)

셰어하우스형 청년주택 공급

주택도 공유…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 효과 기대

청년층의 주거 빈곤이 심각해지면서, 보증금이 적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유주거’ 형태의 셰어하우스(share house)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상록구 본오동 979-9번지 다가구 주택이 ‘셰어하우스형 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으로 거듭나며 입주식을 가졌다.

청년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 ·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경제주체(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에 운영권을 넘겨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 재임대하고 주거공동체 구성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2000년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온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춘아는 2016년 국토교통부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다. 본오동 청년주택은 7세대가 마련돼 있으며 현재 입주확정자 및 대기자 15명이 준비를 마쳤다.

각 세대 당 3~5명이 룸메이트로 함께 생활하게 된다. 주방, 거실, 화장실은 공유하고 침실은 개별로 확보하는 주택으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전자렌지 등 각종 공용 시설과 개인공간에는 침대와 옷장이 구비되어 있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의 50%이하로 저렴하다.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으로 입주하게 된 강법구 씨(24세 · 사진)는 “취업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집이 인천이라 1시간 30분씩 왕복 3시간을 출퇴근에 소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깨끗하고 좋은 집에 입주하게 되어 앞으로도 큰 힘이 될 듯합니다.”라며 밝게 웃었다.

김춘아 센터장은 “이번 셰어하우스를 통해 주택관리 분야의 새로운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어서 경제적 ·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청년주택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기회가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라고 했다.

◇ 문의 :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031-438-9506)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 공공일자리 2천440개 늘린다

생활임금제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2017년 안산시는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민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기업의 고용촉진 유도를 동시에 추진, 연간 2만5,6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목표다. 또한 청년들에게 일 할 기회를 주는 것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부문의 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난해 보다 390명이 늘어난 1,12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도 600명을 모집한다. 지역 내 25개 동 주민센터 자체 실정에 맞는 환경 개선사업도 발굴 · 추진해 각 두 명씩, 총 5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둘째,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 운영한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600명을 포함해, 계층별 청년 인턴 사업에 70명, 넥스트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에도 20명을 모집하며,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객관적 자기 분석이나 맞춤형 생애 근로 설계, 입사서류 작성 방법 등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도 지원한다. 지역 내 6개 특성화 고등학교에 취업상담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도 마련했다. 안산시는 2016년 통계청 고용조사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이 18.1%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셋째, 반월 · 시화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 기숙사의 임차비를 지원하고 공용 통근버스도 운영한다.

넷째,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생활임금제를 추진한다. 지난 7월1일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올해 생활임금액은 7,370원으로 책정됐으며, 안산시 및 출자 · 출연기관을 확대 시행해 적용 대상을 596명을 늘렸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산고용센터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해 한 공간에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안산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동안 증가인원 3명 이상, 증가율 5% 이상인 기업에 대해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안산시 일자리센터 기능을 전체동 주민센터로 확대하기 위해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 일자리 발굴과 수요자 접수를 통한 일대일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김찬미

안산시는 매년 방학이면 지역 내 거주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연수기회와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2017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1월2일~31일)은 255명의 대학생을 선발, 시 산하 행정기관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사무보조 및 아동학습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했다. 업무 분야는 전공학과와 거주지, 부서별 수요를 감안해 배치했다. 근무 시 주의 사항에 대한 기본교육도 현장 배치 전에 실시해 학생들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된 김찬미(특수체육교육 전공)씨는 "아이들의 학습이나 책읽기, 놀이 활동을 돕는다. 전공이 교육이라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도 "방학마다 찾아오는 대학생 선생님들을 형이나 언니처럼 친근하게 따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무척 밝고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방학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대학생들이 직업 체험의 기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더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279)
송민아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소식通

"서점에서 새 책도 대출해준다"

중앙도서관,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시행

보고 싶은 희망도서를 동네서점에서 새 책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서관에 없는 책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 시민들의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안산중앙도서관이 시행하는 '2017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는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을 경우 지정 도서관을 방문해 새 책으로 빌려 보는 제도로, 1인당 월 5권 이내로 제한되며 다 읽은 책은 서점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책은 이후 도서관에 소장된다.

인터넷이나 이메일로도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500명이다. 이용할 수 있는 서점은 대동서적(사동점, 중앙점, 고잔점), 한가람문고(선부동)다.

◇ 문의 : 안산중앙도서관(031-481-3868)

저염 건강 전통장 아카데미

전통장을 이용한 건강음식 만들기 체험

안산시 식품위생과에서 저염 건강 전통장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전통장을 이용한 건강음식 만들기, 저염 간장 및 된장 담그기, 포도 고추장 담그기 등의 내용으로 이론 교육 및 실습이 진행되며, 교육기간은 2월23일부터 4월18일까지다. 모집은 오는 17일까지다. 교육 장소는 상록수보건소 및 대부도 상록수 된장마을이며, 자부담 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전통 발효음식인 전통장 제조기술을 계승하고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식품위생과(031-481-2232)

주말농장 운영… 총 2,880구좌

2월 16~18일, 3일 동안 접수

가족과 함께 하는 2017 주말농장 운영 계획이 발표됐다. 단원농장(초지동 747, 신안산대학 옆, 1천841구좌, 약 5만2천㎡), 초지농장(초지동 662-2, 단원구청 옆, 315구좌, 5천140㎡), 제2초지농장(초지동 667, 화랑유원지 내, 212구좌, 3천5백㎡), 신길농장(신길동1380, 신길동 63블록, 512구좌, 약 3만7천㎡) 등 총 4개소 2천880구좌다. 임대료는 단원농장, 초지농장, 제2초지농장은 16.5㎡ 당 6천610원이며, 신길농장은 66㎡ 당 2만6천470원이다.

1월16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 세대만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토요일 가능)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분양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다. 선정은 컴퓨터로 공개 추첨한다.

◇ 문의 : 안산시 농업기술센터(031-481-3764)

시민프로축구단 ‘안산그리너스FC’ 출범

강하고 끈질기며 협동하는 ‘초록늑대’처럼 누벼라

이흥실 감독 “깜짝 놀랄 만한 팀으로 만들겠다” 각오

축구도시 안산, 3년의 준비 “결실 맺다”

2014년 3월 16일 상록수체육관에서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 창단식이 열렸다. 이후 2년 연고 협약을 통해 프로축구단을 유치, 시민구단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연고 마지막 시즌이었던 지난해에는 우승을 이루어 유종의 미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본격적인 창단 작업에 돌입했고, 지난해 7월 22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창단 발표와 함께 ‘프로축구단 창단 의향서’를 연맹에 공식 제출했다. 시는 “축구를 사랑하는 안산 시민들의 염원이 더해져 창단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현대미포조선팀과 세부적으로 협의해 우수선수 영입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산업으로서의 성장성과 지난 아시안 게임, K리그 올스타전 등을 치르며 증명한 축구도시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이주민과 외국인들로 구성된 인구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9월 28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창단추진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 발족식이 있었고, 첫 회의에서 김호석 생활체육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예산 수립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월 8일 열린 이사회에서 K리그 회원가입을 승인한 뒤 12월 열린 총회에서 최종 승인함으로써, 안산은 2017시즌부터 K리그 챌린지 합류를 확정지었다.

이흥실 감독 선임 “깜짝 놀랄 것”

지난해 11월 17일 초대 감독으로 2016시즌 경찰청프로축구단을 우승으로 이끈 이흥실 감독을 선임했다. 이 감독은 “이번 시즌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팀을 탄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12월 6일에는 팀 명칭을 ‘안산 그리너스 FC’로 공식 발표했다. 시는 한 달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팀 명칭을 공모해 총 269건 중 후보작 5개를 선정, 지하철역과 상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SNS를 통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안산그리너스(Greeners)FC’라는 명칭을 확정했다. ‘그리너스(Greeners)’란 ‘녹색도시 안산시민들’이라는 의미와 함께 ‘초보자’, ‘풋내기’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 창단팀의 풋풋함을 상징한다.

지난 1월 4일에는 2017시즌 창단 첫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흥실 감독은 “이제야 실감이 난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며 “다른 경험 많은 선수들보다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올 시즌을 기대하겠다. 죽기 살기로 뛰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주장 박한수 선수는 “창단 첫 해 주장을 맡게 돼 영광이다. 한 경기 한경기 최선을 다해 상대팀을 물어뜯을 듯이 열심히 경기에 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출정식 다음날 경남 창원으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하울링하는 초록늑대… 엠블럼 발표

1월 20일에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제작은 국가대표 서포터즈 ‘붉은악마’의 ‘치우천왕’을 탄생시키고 대전시티즌과 경남FC, 광주FC, 수원FC 등의 엠블럼을 제작한 장부다 디자이너가 맡았다.

엠블럼의 주 색상은 밝고 아름다운 바다를 연상시키는 에메랄드 그린을 선택했으며 특히, 하단에 들어간 ‘그린 울브스(Green Wolves, 초록늑대)’라는 문구를 통해 ‘강인하고 끈질기며 협동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늑대의 특성을 구단의 상징으로 대입시켜 눈길을 끌었다.

1월 23일 역사적인 창단 첫 시즌권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는 경기에 대한 관중들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N(북), S(남)석을 폐쇄하고 E(동)석과 W(서)석만을 운영한다.

2017시즌권은 카드 3종과 티켓북 1종으로 구성됐다. 먼저 ‘그리너 프레스티지(Greener Prestige)’ 시즌카드는 W석 중앙에 위치한 테이블 지정좌석으로 구단 유니폼과 카드목걸이, 머플러를 사은품으로 얻게 되고 동반 2인까지 함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매 경기 치킨과 맥주 등 식 · 음료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가격은 30만원이며 총 48석 한정 판매다. E석과 서포터즈석 시즌카드인 그리너(Greener, 성인)와 주니어 그리너(Jr.Greener, 학생)는 카드 목걸이와 구단 머플러가 사은품으로 주어지며, 가격은 각각 10만원과 5만원으로 20경기 기준, 당일 입장권 가격의 38%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체 입장 시 좋은 티켓북(E석, 서포터석)은 총 20매로 구성돼 있으며, 10만원이다. 문의는 구단 사무국(☎031-480-2002)을 통해 가능하며, 티켓링크(sports.ticketlink.co.kr)에서도 구매 할 수 있다.

오는 2월 21일 공식 창단식을 앞두고 있는 안산그리너스FC는 이흥실 감독과 이영민 수석코치를 포함 6명의 코칭스태프와 29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됐으며, 개막전은 오는 3월 4일 토요일로 전용구장인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대전 시티즌과의 한판 승부가 예정돼 있다.

저렴한 임대주택 '따복하우스' 건립

산업단지 내 원시운동장 부지… 주변 시세 60% 수준

안산 청년 근로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따복하우스'가 2019년 건립된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을 개발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청년층 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따복하우스 1만호를 지어 도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따뜻하고 복되다'라는 뜻의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과 경기도 고유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낮췄다. 행복주택처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데,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경기도에서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안산시는 1월 19일 경기도시공사와 '안산스마트허브 따복하우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시동 산업단지 내 원시운동장 부지를 활용, 따복하우스 200가구와 문화복지센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특히, 2018년 2월 개통되는 소사원시선 전철역에서 50m 떨어진 역세권 지역으로, 대지면적 5,569㎡에 지하 2층 지상 13층 2개동(연면적 1만4,793㎡)에 면적 29.75㎡(9평) 규모의 200가구가 들어선다.

협약에 따라 시는 경기도시공사에 40년 동안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경기도시공사는 2019년 상반기까지 200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을 지어 40년 동안 운영한다. 이후에는 건물과 부지 모두 시에 귀속한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선정돼 올해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인 이번 사업은 2018년에 착공, 2019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으로, 경기도에서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해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시세보다 64%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저렴한 주거시설을 청년 근로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문화여가, 상업, 주거시설이 혼재된 원스톱라이프 시설을 만들어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산업정책과(031-481-358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는 숲의도시입니다

선부동 석수골운동장 다목적 체육관 준공

"지역주민 건강증진활동에 큰 도움될 것"

선부생활권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다목적 체육관이 선부동 석수골운동장에 건립됐다. 날씨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3년의 공사 끝에 지난 1월 31일 준공된 것이다.

부지면적 1만632제곱미터에 건축면적 2천86제곱미터, 연면적 4천699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국비 40억1600만원과 도비6700만원, 시비93억300만원까지 총 사업비 133억8600만 원이 들었다.

지하1층에는 차 6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1층에는 성인, 어린이, 유아용 풀(pool)이 갖춰진 수영장과 식당, 매점, 코치 · 강사실이 자리했다. 2층은 배드민턴 코트 6면을 포함한 실내체육관과 헬스, 에어로빅, 요가실, 문화센터와 사무실이 함께 들어섰다.

선부동 주민 김미애 씨는 "집 근처에 실내수영장까지 있는 체육관이 생겨서 아주 좋다. 고잔동 올림픽수영장이 수리중이라 재개장을 기다렸는데,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안산시 관계자는 "다목적 체육관이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늘려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된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 체육관에 나와 수영도하고 헬스장도 이용하고 배드민턴도 치면서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목적 체육관 이용은 내부 시설 점검이 끝나는 3월부터 가능하다. 운영관리를 맡은 안산도시공사가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배드민턴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154)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 206개 학교에 교육 경비 지원

175억 규모…시설 환경개선 중심, 혁신교육 사업 포함

안산시는 지역 내 유치원과 초 ·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다.

가정에 학생이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매년 6월까지 학교에 요청하면 학교는 사안을 검토한 후 교육지원청을 통해 다시 안산시 교육청소년과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어 안산시는 올라온 제안 내용에 대해 12월까지 필요성을 평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해 사업으로 결정하고 있다.

2017년 학교 교육 경비 지원 예산은 총 174억9천만 원 규모로 유치원 99개와 초등학교 54개, 중학교 29개, 고등학교 24개 등 총 206개 학교 약 1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 부문에서는 다목적체육관,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학교 벽체 도색, 창호 교체, 방송시설 등이 포함되며, 방과후 프로그램으로는 기초학력지도, 다문화, 돌봄교실, 특수교육, 수영교실 등에 지원된다.

특히 안산시는 혁신교육지구 시즌2가 진행 중으로 안산품은학교, 지역교육공동체,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 다문화 어울림학교, 직업체험센터운영 등 지원 사업에 25억 원 정도를 배정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의 환경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52)

안산시 여권발급 편의 서비스 '호응'

기능성 커버 무상 제공… 평일 오후 10시까지 발급

여권을 발급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시가 이에 대응해 실시하는 편의 서비스들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안산시 여권 발급량은 64,806건으로 경기도 내 5위, 전국 8위에 해당될 정도로 많다. 이에 시는 여권접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중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여권 등기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여권을 수령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문자 및 우편 발송 서비스도 하고 있다. 야간 접수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비닐커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권에 내장된 전자칩 보호 기능을 포함한 비닐커버는 여권 확인이 용이하도록 투명한 재질을 사용했으며, 해외 단체여행 시 여행가이드가 일괄하여 여권을 관리하는 점에 착안해 네임택(name tag)도 추가했다. 또한, 별도의 수납공간을 마련해서 전자여권 취급 시 주의사항을 첨부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에서 여권판독이 용이하도록 분리가 가능한 덮개를 부착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여권발급 수요에 발맞춰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민원여권과(031-481-2138)

안산시환경재단 '탄소포인트제'

"불필요한 요금 줄이고 보상도 받아요"

알뜰살뜰 네 식구 살림을 꾸리는 주부 최부월(50세, 사2동) 씨는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막아 고정 지출을 줄이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아낀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고 있다. 생활 속 작은 실천, 에너지 절약법을 소개한다.

밥은 그때그때 먹을 양 만큼만 짓는다. 전력소모가 많은 보온밥통은 꺼둔다. 이 방법은 한 솥 가득 밥을 해서 24시간 보온할 때보다 월 1만 원 가량 전기요금을 줄여준다. 갓 지은 밥을 먹기 위해 귀가시간을 맞추면서 가족의 결속력도 덤으로 얻는다. 하루 24시간 돌아가는 냉장고는 최대한 전력소모가 적도록 냉동실은 꽉 채우고 냉장실은 60% 정도만 채운다. TV · 에어컨 등 가전기기는 ON-OFF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사용한다. 매번 코드를 뽑는 번거로움 없이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최부월 주부는 전등을 LED로 바꾸고, 베란다에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달았다. 덕분에 한 달 전기요금은 3만 원 대에서 2만 원 대로 줄었다. 단지 내 같은 평형 4식구 전기 사용액의 절반 정도다. 특히, 에너지를 아낀 덕에 안산시 환경재단으로부터 지난해 상반기 7천 원, 하반기 1만 원을 돌려받았다. 환경재단 김대식 차장은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 가스 · 수돗물 등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매년 상 · 하반기 최대 17,500원까지 연간 3만5천 원을 환경부에서 현금 보상해 드리는 제도"라며 "최부월 씨 가정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매년 보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부월 주부는 지난해 동대표 회장으로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에너지절약 최우수마을에 선정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 문의 : 안산환경재단(031-599-9411)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 직원들

도시의 혈관을 뚫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파수꾼

"물수건, 물티슈는 쓰레기통에 분리배출 해주세요" 당부

도시가 먹고 마신 것을 배출하면, 인체 내 혈관처럼 도시 전체에 퍼져있는 오수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 한 곳으로 모인다. 긴 여정 중 이물질이라도 있으면, 서로 뭉쳐 슬러지를 만들고 오수관로의 흐름을 막는다. 인체에 피가 돌지 않아 동맥경화를 일으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듯, 오수관로 속 슬러지는 도시의 호흡을 멈출 수도 있다.

도시라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직원들을 만났다. 화장실 변기나 하수구를 통해 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들, 물수건이나 물티슈, 일회용 성인용품, 여성 위생용품들이 인분과 기름에 섞여 만들어진 슬러지. 도시를 살리기 위해 슬러지를 제거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대한(大寒) 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상록구 사동 뒷골목. 노랑색 긴급하수도준설차량이 들어서고 서너 명의 직원들이 내려 큰 호스로 굵직한 이물질들을 우선 걸러낸다. 이후 3명 씩 조를 이뤄 맨홀 뚜껑을 열고 가느다란 쇠줄로 나머지 슬러지도 마저 처리한다. 시각적 · 후각적으로 좋을 리 없지만, 사명감이 느껴질 만큼 밝은 표정이다.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근무하는 이용길(53세, 와동) 씨는 "봉사하는 마음도 담겨있죠. 도시의 건강을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혈관을 지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일이라고 느껴져요. 더럽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내시경 시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슬러지를 찾아내서 시원하게 뚫고 나면 저도 스트레스가 풀려요." 힘들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안전입니다. 추운 날 장갑이 장비에 달라붙은 채 돌아가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 시 오수관로에 빠질 수도 있고요. 가족들의 당부를 가슴에 항상 새겨두죠."

작업자들은 평소 밤 10시까지 대기하며, 한 번 작업할 때 2시간 정도 걸린다. 오수관로에 걸려있는 슬러지를 빼내고 도려내서 버려야 하며 이후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까지도 하수과 직원들의 업무다.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우리 몸이 애초에 소화시키지 못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변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리지 말아야 할 이물질들은 쓰레기통에 분리배출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또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 주차를 부탁드리는 경우나, 작업 시 악취가 올라오고 오물이 주변의 차량이나 건물에 튀는 경우, 함께 사는 도시의 건강을 위해 조금만 더 너그럽게 대해주시기 바란다."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사단법인 은밸리댄스 김은림 단장

"매력적인 밸리댄스, 어려워 마세요"

밸리댄스는 그리스, 이집트, 터키, 중동, 유럽 등 서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북안에 걸쳐 있는 오리엔탈 로드에 기원을 둔 춤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춤이나 예술의 개념보다는 복근을 유연하게 하고 허리통증을 완화하는 수단인 스포츠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늘하늘한 치마에 배를 드러낸 상의, 골반을 가볍게 튕기며 추는 발랄한 느낌의 춤'으로 화려하고 조금은 야한 매력을 가진 이미지의 밸리댄스. 오랜 세월, 밸리댄스를 하며 제자들을 양성해온 김은림 단장을 만났다.

"학생 시절 육상선수로 활동 할 때는 크게 몸매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운동을 그만두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러면서 요가와 밸리댄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욕심이 많다보니 공부도 끝까지 하는 편이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밸리댄스는 하면 할수록 매력에 빠져나올 수 없는 분야입니다." 밸리댄스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이어 운동적인 측면의 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대사회가 휴대폰, 컴퓨터, 책상 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체형이 틀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등을 펴고 고개를 들고 손끝에서 발끝까지 신경쓰다보니 선이 아름다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현재 밸리댄스는 대중적인 스포츠까지는 아니지만 초등학교나 문화센터에서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 인기 스포츠 중 하나다. 시간이 나는 대로 제자들과 함께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는 김 단장은 밸리댄스가 대중화되어 운동을 통한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바람이다.

"밸리댄스에 관심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목표가 있다면 밸리댄스를 통해 아름다운 몸의 선을 지키고 지도자로서 후배양성도 열심히 해, 함께 공연도 봉사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밸리댄스에 대해)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가오세요.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김선 명예기자_itsumo9011@naver.com
김진국 사진작가

안산부심 (安山負心)

안산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일컫는 말

교통편

사람이 살기에 편안하고 좋은 곳이라는 의미의 안산(安山).
고려 태조 시절부터 이어져 오는 천년고도입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반월 · 시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화의 선도적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다시 30년을 준비하며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니 안사니 하면서 사는 안산'이라는 자조적 표현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들의 땀방울과 열정으로 만들어 낸 안산이라는 도시의 자부심을 되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환경을 교통, 자연, 산업, 교육, 문화 등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눠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통 환경에 대한 자부심을 소개합니다.

4개 고속도로에 5개 철도망 '촘촘'… "어디든 간다"

여의도까지 30분 '출퇴근 가능', 부산은 2시간30분 '반나절 생활권'

안산은 산업도시이자 계획도시며, 전원주택도시였다. 그래서 도로를 많이 넓게 그리고 가능하면 반듯하게 뚫었고 군데군데 공원도 만들었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계획을 수립했고 하나하나 실천했다.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끄는 과정이었고, 이젠 70만이 넘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더불어, 교통도 발달했다. 4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5개의 철도망이 깔렸거나 깔릴 예정이다. 명실상부한 교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영동 · 서해안 · 서울외곽순환에 평택–시흥고속도로 '운행'
제3경인고속도로, 제2순환선, 국도77호선 개설 계획

안산의 대표적인 고속도로는 1971년 노선명이 지정된 영동고속도로가 있다. 인천 서창분기점에서 강원도 강릉분기점에 이르는 고속국도로 길이 234.39㎞, 왕복 4~8차선이다. 국토를 동서로 횡단하며 물자수송과 관광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안산은 안산IC와 서안산IC 두 개의 톨게이트, 총 연장 7.5 Km 구간이 포함돼 있으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북수원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서울과 전남 목포시를 잇는 길이 341㎞의,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서해안고속도로도 있다. 1990년 12월 착공해2001년 12월 완공했다. 인천국제공항 및 국제해양관광단지, 태안반도, 변산반도, 다도해 등 아름다운 관광지와 연결된다. 인천~안산(28㎞) 구간은 1994년 7월 개통됐고, 안산~당진(61㎞) · 서천~군산(22.7㎞) · 무안~목포(23㎞) 구간도 1998년 완공됐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있다. 경기도 성남~안양~안산~고양~의정부~구리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원형으로 연결하는 도시순환 고속도로로 총길이 127.5㎞, 왕복 8차선이다. 수도권의 교통량 급증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됐고, 1988년 착공 2007년 12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2013년 개통된 평택시흥고속도로도 안산을 지나간다. 경기도 평택시를 기점으로, 시흥시를 종점으로 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지선이며, 제2서해안고속도로라고 불리기도 한다. 총 연장은 39.39km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 분기점~안산 분기점 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서창 분기점~안산 분기점 구간의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자 고속도로이다.

강원도가 고향인 심 모씨(48세 · 사동)는 "평소 여행을 즐겨하는데, 안산에서 출발하면 강원도든 충청도든 전국 어디라도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며 "10여 분이면 바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

안산선 8개역에 수인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착착'
인천발KTX 초지역 정차, 광주까지 1시간40분 '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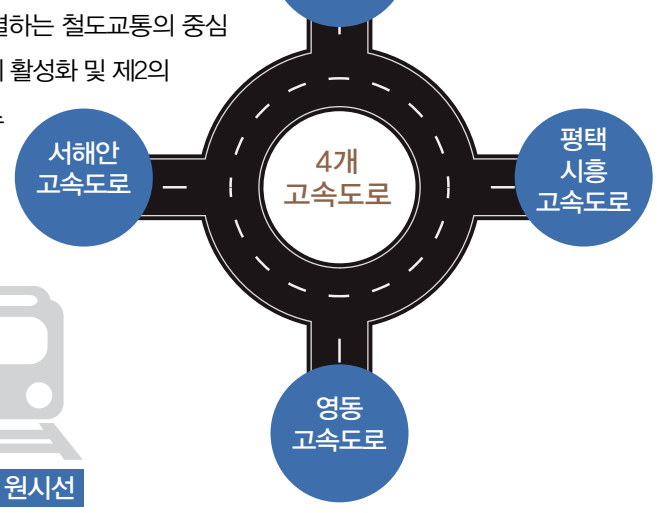
안산의 철도 역사는 약 80년에 이른다. 1937년에 개통돼 1995년까지 운행된 수인선 협궤열차가 그 시작이었다. 좌석 50석 규모로 수원~남인천 간 총 52km를 운행했던 수인선은 장을 보러 가거나 나들이 수단으로 많이 이용됐으며, 해방 후에는 통학생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당시 안산에는 사리역, 일리역, 고잔역, 원곡역 등 4개가 있었다. 옛 협궤열차가 운행되던 곳을 복선 전철화하는 수인선이 내년 개통될 예정이다. 안산을 중심으로 수원과 화성, 인천을 왕래할 수 있는 동서 간 광역철도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반지하화 건설로 전철역 상부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마련된다.

1988년 서울~안산 간 전철이 개통됐다. 경부선인 군포시 금정역과 안산시 안산역을 잇는 복선전철로 반월역, 상록수역(용신역), 한대앞역, 중앙역, 안산역이었다. 이후 1994년 사당~인덕원 구간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안산의 교통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1992년 고잔역, 1994년 공단역(초지역), 2000년 신길온천역이 증설됐다. 이를 잇는 두 번째 교통혁신이 준비 중이다. 광명역~여의도~서울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급행철도인 신안산선이 올해 착공될 예정으로, 중앙역~한양대(90블록)까지 노선 연장도 확정했다. 서울과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산업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서남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가 기간철도 소사–원시선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부천 소사~안산 원시까지 23.3km이며 안산에는 석수골, 선부, 화랑, 원곡, 원시역이 생길 예정이다. 반월 · 시화산업단지 교통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소사역은 대곡–소사선과 연결되고 원시역은 서해선(장항선 홍성역과 송산역을 잇는 간선철도)과 연결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인천발KTX의 초지역 정차가 반갑다. 이는 부산 2시간30분, 광주 1시간40분이라는 쾌속주행으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등의 철도 노선과 연계돼 전국 어디든 편히 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더불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개통을 목표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이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4개의 철도노선이 동서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과 충청권을 물론 전국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떠올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2의 도약을 위한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시, 대중교통 불편 민원 "많이 줄었다"

적극적인 시정 지도… 전년 대비 19.4% 감소

안산시의 대중교통은 시내 60개, 시외 39개 노선으로 주행되는 버스 844대와 택시 2,616대(법인 525대, 개인 2,091대)로 구성돼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산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6년 대중교통 불편민원 해소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시민들의 불편민원을 전년 대비 19.4% 감소시켰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버스 관련 민원은 총 2,488건으로 무정차 1,381건(55.5%)과 불친절 348건(14.0%)이 높았으며, 택시 관련 민원은 총 963건으로 승차거부 314건(32.5%), 부당요금 196건(20.4%) 등이 접수 됐다. 이는 2015년 버스 · 택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총 민원 4,282건보다 831건이 감소된 수치이다.

안산시 환경에너지교통국은 해당 운수업체와 협력해 무정차, 승차거부 등의 비중이 높은 불편 사항을 시정지도, 행정처분,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그 결과 버스 관련 민원은 22.8%, 택시 관련 민원은 9.0%로 감소됐다.

이에 안산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시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민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운수사업체와 협력하여 불편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대중교통과(031–481–2296)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음악회

하루처럼 이어온 천일, 그리고 새로운 시작

"1000일은 참 길고 오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00일을 하루처럼 이어온 우리라는 것을. 앞으로 가야할 날들이 만일이 될지언정 굴하지 않고 이일 함께 해 나갈 것을."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음악회가 안산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잊지 않아요. 기억할게요. 함께 하겠습니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또 다시 한 걸음 시작하는 약속과 다짐의 시간이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오늘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슬픔의 날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다짐의 날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 · 16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졌다. 검은색 옷에 노란 스카프를 걸친 부모님들이 '네버엔딩 스토리'를 부르기 시작하자 스크린 위로 희생된 아이들의 단체 사진과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세월호 가족들의 속울음이 담긴 목소리와 끝도 없이 지나가는 수많은 이름들로, 객석에선 흐느낌이 나오기 시작했고 눈물을 훔치는 시민들도 많이 목격됐다. 공연 후 오랫동안 힘찬 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추모 음악회에는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했던 많은 예술가들이 함께 했다. 가수 권진원 씨는 4월 꽃처럼 어여쁜 아이들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를 통해 새롭게 꽃 피울 것을 약속했고, '옥상달빛'은 미수습자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노래로 응원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배우들'은 30분가량 무대에 올라 다양한 공연을 펼쳤으며, 공연의 마지막 순서는 전인권 밴드의 무대였다. 특히 세월호 천일을 맞아 다시 듣는 '걱정말아요, 그대'는 더 새로웠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이 차오르는 것 같았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세월호 추모시설

4·16안전공원, 시민 생각 담아 건립 예정

시민토론회… 기억과 치유, 희망, 안전교육 등 의견 제시

세월호 추모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는 작년 7월 피해가족과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모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올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왔다. 안산시 및 정부 관계자, 시의원, 가족협의회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피해가족과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 올 상반기까지 추모시설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11월에는 초지동, 고잔1동, 와동, 선부1동에서 동별로 주민 경청회를 개최해 추모시설에 대한 공감대를 모색했으며, 12월에는 시민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토론회는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안배를 통해 선정된 204명의 성인과 41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안전공원에 대해 '기억과 치유의 공간', '희망', '안전교육의 장' 등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시민 친화적이며 교육적인 공간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희생자들의 스토리가 담긴 기념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구조물 등이 설계에 반영되길 희망했다. 장소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좋고 상징성이 있으며 기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을 꼽았다. 지역 주민과의 합의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합동분향소가 있는 화랑유원지가 많이 거론됐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저소득 취약계층에 사랑의 쌀 40포 후원

안산시 초지동(동장 김장석)은 세월호4.16가족협의회(이하4.16가족협의회) 김종기 사무처장 등 유가족 일동이 기탁한 쌀 40포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는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받은 사랑과 후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초지동을 비롯하여 단원구 6개 동과 안산평화의 집 등 복지시설 8개소에 10kg 쌀 300포를 기탁했다.

4.16가족협의회 유가족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함께 지지와 격려를 주셨고 후원물품도 많이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후원을 받은 한 주민은 "최근 추워진 날씨에도 세월호 가족들의 후원을 통해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 그래도 혼자가 아니고 이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구나 싶어 앞으로 용기를 갖고 생활하겠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장석 동장은 "경기불황으로 누구나 어려운 시기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따스한 모습을 보며 우리 지역사회의 훈훈한 정을 느끼게 되었고, 후원해주신 세월호 유가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시 도서관, 방학 프로그램 '다양'

'시서(詩書)를 채우며 사람다운 사람으로'

중국 당나라의 문인이자 사상가 한유(韓愈)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뱃속에 시서(詩書)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며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명언을 남겼으며,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Cicero)는 "도서관과 정원만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셈"이라고도 했다.

동네 곳곳에 자리 잡은 안산시 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독서교실은 94회를 맞았다. 중앙도서관은 '시간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상록구 · 단원구 도서관은 '민주주의'를 주제로 글쓰기, 독서신문 만들기, 스피치교실 등 독후활동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맞았다.

초등 저학년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됐다. 상록어린이도서관 '리더(Leader)는 리더(Reader)다'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리더십과 리더의 자질에 대해 알아본 뒤,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봄방학에는 예비초1~4학년 대상으로 '새학기를 맞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연다.

단원어린이도서관은 '스토리 쿡 요리씨앗동화', '새해맞이 전통 손가방 만들기' 등 유아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특색 있는 강좌로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도서관마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인문학 강좌도 눈여겨볼만하다. 중앙도서관은 2017년 첫 번째 '인문학 열두 마당'에 〈육룡이 나르샤〉를 연출한 SBS 신경수 PD를 초청해 드라마는 현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오는 28일(화)에는 신기주 기자의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기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기' 강연을 마련한다.

감골도서관은 지난 1월, '쏭내관의 재미있는 궁궐 이야기'로 '청소년 1318 인문학'의 포문을 열었다. 시리즈 저자 송용진 작가는 "500년의 역사가 담긴 궁궐을 공원 또는 데이트 장소로만 여기지 않기 바란다."며 우리 궁궐의 존엄함과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북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이다혜 기자의 '오늘 뭐 읽지?:청소년을 위한 영화와 소설 읽기' 강연도 진행됐으며 오는 16일(목)에는 '야간인문학–글 쓰는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의 자존감 수업'이 열린다. 또한 관산도서관은 오는 3월 6일(월), 최일구 전 앵커를 초청해 '역경을 넘어 희망을 향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연다.

◇ 문의 : 안산시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청소년수련관 봄학기 프로그램 접수

◇ 접수기간 ◇
기존회원 2월4일(토)~2월12일(일)
신규회원 2월14일(화)~마감시까지
인터넷접수 2월14일(화)~2월17일(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동아리 모집
○ 모집기간 : 2017. 1. 24(화)~3. 18(토)
○ 대상 : 안산시 관내 청소년(만9세 ~ 24세)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564호 "별잡이"
○ 일시 : 2017. 2. 16.(목) 17:30~20:30
○ 장소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3층 청소년직업체험센터
○ 대상 : 관내 10~13세 청소년
○ 내용 : 지구과학 강의, 별자리 공예체험, 천체관측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893호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
○ 일시 : 2017. 2. 16.(목)~18(토) 14:00~17:00
○ 장소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3층 청소년직업체험센터
○ 대상 : 관내 14~19세 청소년
○ 내용 : 진로교육, 로드맵 및 비전설계, 포트폴리오 이해 등

꿈을 키우는 소리 꿈틀꿈틀 <언론·기자체험>
○ 일시 : 2017. 2. 23.(목) 10:00~17:00
○ 장소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조선일보 뉴지엄
○ 대상 : 관내 11~13세 청소년
○ 내용 : 조선일보 뉴지엄 기관탐방 및 1일 신문방송 · 기자 체험

◇ 문의 : 청소년수련관(031–475–1981)

책 읽는 안산 / 2월 첫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나만의 스테디셀러』

아동

이게 정말 사과일까?

저자 요시타케 신스케 / **출판사** 주니어김영사

'사과'라는 사물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상상하고 추론해 보는 '생각의 힘'을 알려 주어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유쾌한 그림책이다.
사과를 소재로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의심과 공상, 상상, 환상까지 보여 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상상한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청소년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저자 설민석 / **출판사** 휴먼큐브

역사라면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일반인들에게 저자는 19년째 한국사 강의를 해온 노하우를 집약해서 누가 읽어도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자 고심했다. 그 결과물로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은 탄생했다. 한국사를 인물/사건/문화유산 3개의 장으로 구분했다.

성인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 몰라

저자 김용택 / **출판사** 예담

나희덕의 문장을 또박또박 따라 쓰는 동안, 심상하게 읽어오던 문장들이 새삼스럽게 내게로 다가온다. 총 111편의 작품을 손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읽는다. 책의 차례처럼 잎이 필 때, 바람의 노래가 들릴 때, 햇살이 나를 나눌 때, 발걸음을 멈추고, 읽고 쓰고 마음에서 소화하기까지, 손으로 읽고 마음으로 새기는 감성치유 라이팅북.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안산에서 만나는 '빈 소년 합창단'

'스마일' 주제로 송가 · 민요까지 … 순백의 목소리를 만나다

지난 1월 20일, 보이 소프라노의 대명사 '빈 소년 합창단(Vienna Boys' Choir)'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찾았다.

1498년 7월 오스트리아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궁정교회 성가대로 시작한 빈 소년 합창단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단과 함께 빈 궁정악단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이다. 슈베르트, 하이든, 베토벤, 바그너, 리스트, 요한 스트라우스 등 최고의 작곡가들이 단원이나 지휘자로 활동하거나 음악을 헌정했다.

지금도 빈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베를린 슈타츠카팔레 등 세계 최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마리스 얀손스,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협연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브루크너 등 총 4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 300회가 넘는 공연을 소화하고 있다.

1969년 첫 내한공연 이후 우리나라를 27번 방문한 빈 소년 합창단은 국내에서 170회가 넘는 공연을 펼친 바 있다. 특히 매해 1월에 열리는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는 우리나라에서만 개최된다.

중시키자 관객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웅성거린다. 하지만 곧 지휘가 시작되자 어디선가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객석 통로를 걸으며 무대로 향하는 소년들의 목소리는 천상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을 짐작하게 한다. 이날 신년음악회는 '스마일'(smile)이라는 주제로 헨리 퍼셀의 송가부터 마음을 울리는 모테트, 불가리아 · 아프라카 · 멕시코 등 세계 각국의 민요, 영화음악, 왈츠와 폴카 음악까지 전 연령대가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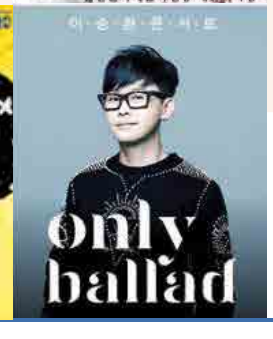
23명의 소년들이 지휘자와 눈을 맞춰가며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는 관객들을 새들이 지저귀는 아침 숲속으로 안내하는가 하면, 텀블링을 하며 나타나는 〈정글북〉의 곰 발루와 모글리를 소환해 무대를 정글로 만들어버린다. 이어 순수하고 사심 없는 신의 사랑을 찬양하는 인도의 바잔(Bhajan)이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경건함으로 안내한다. 소년들은 '사트–치트–아난다 루팜'을 되뇌며 완성의 경지에 도달한 고요한 순간을 보여주며 먹먹한 감동을 자아냈다.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음악, 순수한 합창은 관객에게 새 마음과 따뜻한 위로를 선물했다.

2017년 행복을 노래하다! 함박눈이 축복처럼 내린 날, 눈처럼 맑은 순백의 목소리들을 만났다. 무대에 홀로 선 지휘자 '올리버 슈테히'가 객석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시선을 집

◇ 문의 : 안산문화재단 공연기획부(031–481–402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02 Culture Calendar

☎ 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단원미술관(031–481–050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5		7	8	9	10 **대부동 척사대회** **제2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일시 2017. 2. 11(토) 14:00 장소 바다향기 테마파크	11 **고잔2동 척사대회** **희망의 가족 연날리기 대회** 일시 2017. 2. 11(토) 14:00 장소 중앙초교
12 **본오2동 척사대회** 일시 2017.2.12.(일) 장소 주민센터	13		15	16 **안산시립국악단 연주회** 일시 2017. 2. 16. (목) 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 입장료 전석 무료		18 **<2017 장윤정 & 조항조 전국투어콘서트>** 일시 2017-02-18(토) 시간 15:00, 19: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전 <소장품, 미술관의 얼굴> 일시 2017.2.16-2017.4.16 장소 경기도미술관 **<산책자의 시선>** 일시 2016.12.15-2017.2.5 장소 경기도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상설교육전시 <공간의 발견>** 일시 2016.9.13.-2017.8.27 장소 경기도미술관		21 28 **단원김홍도의거리풍정** 일시 2016.12.6.~ 장소 단원미술관 2관	22	23 		25 **<이승환 발라드 콘서트 Only Ballad in 안산>** 일시 2017-02-25(토) ~ 26(일) 시간 25.(토) 6pm, 26.(일) 5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안산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선체 온전하게 인양하라"

안산시의회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진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 가족들과 면담을 가졌다. 왼쪽부터 나정숙, 전준호, 김동수 의원, 박은경 위원장.

세월호특위, 진도 팽목항 방문 미수습 가족 면담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4 · 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은경 '4 · 16세월호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박은경 위원장은 "세월호 특위 활동이 2016년 9월 30일 종료됐지만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는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고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피폐되어 가는 상황에서 선체인양과 진상규명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유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염원을 승화시켜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안산시의회는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실질적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고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의회 세월호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경)가 지난달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박은경 위원장과 김동수, 나정숙, 전준호 위원은 팽목항을 찾아 분향소에서 참배하고 미수습자 가족들과 면담 · 위문했다.

현재 팽목항에는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9명의 가족 일부가 머물고 있으며, 이들은 선체 인양이 마무리돼 시신을 찾을 수 있게 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감사패 수상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사진 오른쪽)이 '나눔과 기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이 지난달 25일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측으로부터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나눔과 기쁨'은 소외된 이웃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푸드뱅크 및 미소금융, 반찬 나눔 운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경기도를 비롯한 국내 16개 시 · 도와 해외 3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나눔과 기쁨' 안산시연합회 공동대표이기도 한 이민근 의장은 의회가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눔의 날'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것은 물론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희망나눔 모금방송'의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아오는 등 지역에서 봉사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민근 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 온정이 더욱 퍼질 수 있도록 복지 정책 발굴과 함께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안산시의회, 소통콘서트

본회의 앞서 기타 동아리 '풀땅' 공연

지난달 16일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소통 콘서트'의 한 장면.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본회의장을 시민들의 문화 · 예술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소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의회는 지난달 16일 임시회 개회식에 앞서 초지동 통기타 동아리 '풀땅'의 연주를 듣는 '소통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 방청에 나선 시민들을 비롯해 의원들과 시 관계자들은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의 시작을 감미로운 통기타 선율과 함께 했다.

지난 2015년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기도 한 풀땅은 '동해의 꿈'과 '바위섬',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등 3곡을 연이어 들려주며 개의를 앞두고 경직되기 쉬운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의회는 앞으로 매 회기 개의에 앞서 '소통 콘서트'를 개최해 지역 동아리에 무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의장은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예술 공연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칼럼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는 2016년 다보스포럼의 핵심의제로 선정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을 말하며 그 중심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기술과 결합돼 인공지능(A.I.), 로봇, 3D프린팅, 자율주행차,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등의 신기술로 나타나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마치 한 편의 SF영화처럼 먼 미래의 일들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모든 산업이나 생활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과 결합한 인공지능이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일상 공간에서 인간의 취향을 파악해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기기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 증강현실을 이용한 회의를 열어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실감을 줌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이 범접할 수 없었던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을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공룡시대를 체험하고, 우주를 가보지 않고 달이나, 화성, 목성 등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밖에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도로 교통의 효율성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는 운전하는 동시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어, 인간의 시간적 효율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난해 봄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 간 세기의 대결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떠들썩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잠깐이나마 인간이 기계에 지배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신기술의 발달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도구인 만큼, 이를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는 대안이 중요하다. 이에 발맞춰 안산시도 스마트공장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강점을 활용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비단 산업의 변화 뿐 아니라 도시의 기능과 형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 **김선지_**(재)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 독자 기고•

안산시민이 한명 늘었어요

"얘, 우리 안산 사람들은… 생일날 아파트 위 · 아래층 떡도 나눠먹고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있잖아 정이라는 거.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장난 아니게 삭막하다니까" 6년 전쯤 캐나다로 이민 갔던 친구가 얼마 전 귀국해 함께 밥을 먹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격정적으로 쏟아낸 말이다. 그저 잘 사는 줄 알았던 친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다. 친구는 정색하며 말을 이었다. "나, 다시 돌아오려고. 못살겠어, 한국이 너무 그리워. 처음에 떠날 때는 애들 교육 때문에 간 거고, 살다보니 참 괜찮은 것 같아서 눌러 앉은 건데… 나이 들수록 안산이 제일 좋더라. 고향에서 너 같은 친구도 볼 수 있잖아."

친구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에 호수마을 근처 아파트 계약까지 마치고 갈 생각이라고 했다. 나는 친구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 준다고 하니 너무 기뻐서 웃었고, 친구 역시 자기 곁으로 와서 함께 살자는 친구가 있는 게 좋아서 웃었다.

친구가 처음 느낀 캐나다의 인상은 어딜 가나 울창한 숲, 아름다운 호수와 맑고 파란 하늘… 하나님이 지었다는 에덴동산이 꼭 그랬을 것이라 여겼단다. 하지만 점차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니 숲 속에 묻혀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일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란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 분위기가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면서 그것이 이웃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이웃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치는 것이 인정이다. 서구인들 사이에서 인정머리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한다. 기부문화는 발달해 있지만 인정을 나눈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인색하다고 한다.

친구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저 "대한민국은 정이 좀 있지"라는 정도로 여겼는데, 실제 밖에서 경험한 친구의 말을 들으니 "나는 지금 너무나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거나 이제 친구는 곧 돌아와 다시 안산시민이 될 것이다. 너무 고맙고 기쁘기 짝이 없다.

● **양창숙**(상록구 화랑로)

• 기자수첩•

빈부의 대물림과 교육 권력

학교 다닐 때에는 우등상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Y씨(50세). 중학교 진학은 꿈도 못 꾸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나이에 가난한 집안의 입 하나 던다는 생각으로 시골에서 상경해 구로공단에서 일을 시작했다. 성인이 되어서도 남모르는 학력 콤플렉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Y씨에게 대학 나온 남자가 구애를 해왔다. 그 남자는 학력차로 자꾸만 밀어내는 Y씨에게 단지 학벌 때문이라면 자신의 청혼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Y씨는 인품 훌륭한 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여 아들 딸 낳고 잘살고 있다.

기자가 Y씨를 만난 건 몇 년 전 한 야학에서다. Y씨는 눈에 띄는 학생이었다. 열심히 공부했고 쉬는 시간에는 앞에 나와 급우들의 눈높이에서 모르는 것을 가르치기도 했다. Y씨가 자기소개 시간에 어려웠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을 때, 고생하는 어린 Y의 모습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중학생 아들에게 엄마가 국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야학에 다니며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물었더니 아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대찬성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말할 때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힘찬 박수를 보냈다.

명문 S대를 나와 고시에 합격한 후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우병우, 조윤선. 김기춘의 모습을 보면 "S대는 집단 사기꾼 양성소"라고 했던 80년대 모 대학교수의 말이 생각난다. 우리사회도 이쯤에서 입학 자체가 권력이 돼버린 S대를 해체하고 프랑스 파리처럼 대학의 서열을 없애 제1대학, 제2대학 이라고 숫자로 표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에 가난한 집 아이들의 입학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기득권층은 부의 대물림과 함께 교육 권력까지 그들만의 리그로 공고히 하고 있다.

※기자수첩에 실린 내용은 브라보안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백미란** 명예기자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안산 눈썰매장

"야호, 신난다. 겨울엔 눈썰매가 최고~"

겨울은 겨울다워야 맛이다. 역시 눈이 최고다.
친구와 함께, 혹은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겨울.
두툼한 튜브에 엉덩이를 맡기고
시원스럽게 내려오는 눈썰매를 타보자.
놀다 지쳐 잠든 막내 동생도,
빙어를 보며 입을 크게 벌린 여자아이도, 모두 행복!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안산시에 하고 싶은 말! 말! 말!

대부고교 교차로부터 북동삼거리까지의 직선형 도로를 과속 운전하는 차량이 많아 지난 주말에도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잔해들이 도로가에 널브러져 있어 도로안전이 취약하므로 현장 확인하시고 과속 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도로안전 보강을 해주세요.

대부도지역 과속방지턱은 대부도 주민 지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제 정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원하실 경우에는 통장회의 및 지역주민회의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건의하여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단원구 건설행정과 , U-정보센터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언제 완공되는지요? 2017년 1월이 완공시기가 아니었나요? 실내수영장은 언제쯤 이용할 수 있나요?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개관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고, 준공이 되는대로 물품구입 등 행정적인 업무 추진 후에 오는 7월경에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관계획이 나오는 대로 홍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산시 체육진흥과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행복예절관에 등록하여 4일을 지내보니 프로그램이 너무 맘에 들었고 아이도 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청학동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 참가하기 힘들었는데 안산시에 전통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너무 좋았어요. 행복예절관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전통체험을 통해 우리문화를 바로 알고 인성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 부탁드리고 1박이라도 숙식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행복예절관은 숙박 시설이 아닌 교육 기관으로 되어 있어, 숙박에 따른 시설 확충과 그에 따른 인력 확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산시 여성가족과

시민의 의견을 크게 듣겠습니다

시장에 바란다 https://mayor.iansan.net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매월) https://sotong.iansan.net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동 방문(월 2회)
안산드림TV http://ansandream.tv
시민제안 http://idea.iansan.net

2월 금연

“올해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정부의 혐오 광고와 안산시의 클리닉 ‘협업’

정부는 올해부터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그림을 담뱃갑에 인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금연정책을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된 정부의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혐오 그림이 인쇄된 담배는 1월 중순부터 판매되고 있다. 비가격 금연정책은, 혐오스러운 그림이나 사례로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돼, 현재 전 세계 101개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비가격 금연정책은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독려했던 가격 금연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차선책으로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기 위해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이라는 과감한 문구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현재는 또 다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영상광고를 통해 흡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증언형 금연캠페인’도 시행하고 있으며, 올 12월부터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전국 5만6천여 곳의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도 적극 나섰다. 안산시 상록수 · 단원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클리닉’과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 단속 및 캠페인 등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양 보건소는 흡연자들이 흡연의 폐해를 직접 알 수 있도록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금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애연가들에게는 클리닉을 받는 동안 금연에 도움을 줄 물품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며, 6개월 금연 성공 시 5만 원 상당의 금연 성공물품이나 치아 스케일링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문의 : 상록수 보건소(031-481-5899, 5921)
단원보건소(031-481-3476~78)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금연 선언한 시민들의 이모저모

“이번만은, 꼭 끊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인지 금연클리닉을 찾는 이들이 꽤 많았다. 매년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할 만큼 쉽지 않은 금연을 위해 클리닉을 찾는 이들의 사연은 달랐지만, “꼭 끊고야 말겠다”는 의지만은 모두가 같았다.

• 자동차정비업의 40대 박 씨 •

금연상담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금연클리닉을 찾아 정기적인 점검을 받다보니 담배 생각이 나다가도 ‘다음 방문까지 또 약속했는데 어기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생겨 의지를 다지게 된다. 담배를 끊고 나니 가족들도 좋아하고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일단 목에서 가래가 사라지고 늘 담배 부스러기가 들어있던 주머니가 깨끗해져서 좋다.”

• 50대 직장인 •

금연결심만 벌써 세 번째

“하루에 한 갑반이 넘는 담배를 피워왔는데 매번 끊어야지 마음만 먹고 쉽지가 않았다. 그러다가 늦둥이 어린 조카에게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놀라 이번에는 꼭 끊어보리라 다짐했다. 명절에 조카를 만나 금연 약속을 지키는 큰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 경비업에 종사하는 60대 •

여기저기 흡연 장소를 찾아 기웃거리기 싫다

“금연 148일, 클리닉에서는 160일을 성공으로 본다. 여전히 담배생각이 나지만, 클리닉에서 챙겨준 은단, 가글, 껌을 씹으며 참고 있다. 클리닉에 정기적으로 오면서 의지를 다진다.”

• 50대 자영업 부부 •

늦둥이 딸 생각해 함께 금연 결심

“늦둥이 딸이 올해 5살인데, 아이를 생각해 부부가 함께 금연을 실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아이 얼굴을 떠올리며 둘 다 꼭 끊겠다.”

• 상록수보건소 금연상담사 •

“중도에 포기했다고 좌절하기도 하고 상담사에게 미안해 못 나오겠다는 분들도 많다. 좌절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또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드리고 지지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꾸준히 금연클리닉을 찾고 있지만, 성공률은 35% 정도라고 한다. 본인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금연클리닉을 찾는 것이 금연 성공의 첫걸음이다.”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40년 애연가 전영일 씨, 금연에 성공하다

“내가 담배를 배신한 게 아니라 담배가 나를 배신한 것”

가장 이기기 힘든 건 역시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 한다. 가장 달콤한 유혹으로 속삭이는 동시에 온 몸을 비틀어 대며 저항하기 때문이다. 40년 동안 곁에 두고 피웠던 담배를 떠나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용기 있는 결단으로 금단증상의 속삭임을 이겨낸 금연 성공자 전영일(61세, 월피동)씨를 만났다.

Q 담배는 얼마나 피웠고, 언제, 어떻게 끊었나?

A 40년 동안 피웠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곁에 있던, 친구 같은 존재였다. 처음 금연을 결정했을 때, 마치 오랜 친구를 배신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손끝을 수술해야 했는데, 의사가 회복기만이라도 금연하라고 지시했다. 간호사가 손끝에서 피를 뽑으러 왔는데, 대번에 “담배 태우시죠?”라고 묻더라.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피를 뽑아보면 알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안돼서 피가 잘 안 나와요.”라고 했다. 그때 알았다. 내가 담배를 배신한 게 아니라 담배가 나를 먼저 배신한 거구나. 그래서 퇴원 후에도 그 배신감을 기억하며 담배를 끊었다. 이제 6개월 지났다.

Q 금연 후 무엇이 달라졌나?

A 일단 목이 좋아졌다. 목감기도 덜 걸리고, 가래가 없어졌다. 주머니도 편해지고 냄새도 사라졌다. 특히 손 감촉이 확실히 달라졌다. 나무껍질처럼 거칠고, 겨울철 마다 터져 많이 고생했었는데, 담배를 끊으니 손이 신기할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Q 담배가 생각날 땐 어떻게 하나?

A 은단이나 사탕을 먹기도 하고….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담배 생각이 날 때 부드러워진 손을 본다. 서로 비벼보기도 하고 얼굴을 만지면서 느껴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다짐한다. “한번 배신한 친구는 절대로 다시 만나지 않는다.”라고. “어디 손뿐이겠는가, 좋아진 데가….”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